

러-우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 변화와 시사점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hryou@kiep.go.kr, 044-414-1165)



차 례

1. 국가별 원유 수입 비중 현황
2. 대중동 원유 수입 증가 요인
3. 결론 및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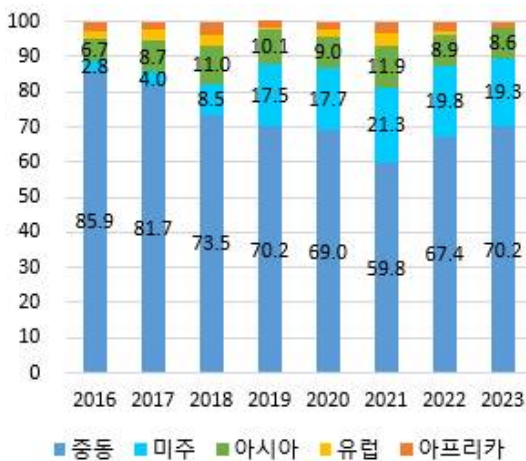
- ▶ 최근 미주, 아시아 등지로 다변화되었던 우리나라의 원유도입선이 2022년 다시 중동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23년 1/4분기에도 같은 추세가 지속됨.
 -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16년 85.9%에서 2021년 59.8%로 5년간 약 26.1%p 감소하였으나, 러-우 전쟁 여파로 2022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7.6%p 증가하며 67.4%를 기록함.
 - 2023년 1/4분기에도 70.2%를 기록하며 대중동 의존도 심화 추세가 지속됨.
- ▶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우리 정유사의 안정적 공급처 선호 기조, 중동산 원유의 접근성 확대, 미국산 원유에 대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안정적 공급처 선호 기조]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과 러시아산 원유 도입 중단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우리 정유사의 안정적 공급처 선호 기조가 강화됨.
 - [중동산 원유의 접근성 확대] 중동의 산유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중동의 주요 원유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 인도의 대중동 원유 도입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중동산 원유의 접근성이 확대됨.
 - [미국산 원유에 대한 글로벌 경쟁 심화]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최근 우리 정유사가 도입선 다변화 대상으로 주목해온 미국을 대체 수입처로 고려할 수 있으나, EU 내 미국산 원유 수요 확대로 도입 경쟁이 심화됨.
- ▶ 수입원의 특정 지역 편중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향후 우리 정유사의 가격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중동 원유 비중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입처 개척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중동은 전통적으로 정세가 불안한 지역일 뿐 아니라 2010년대 후반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유전 시설 공격 등 역내 국가간 갈등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최근 대중동 원유 도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임.
 - 원유 수입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경우 해당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에 따른 가격 변동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정유사의 가격 협상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원유 도입 감소가 중동 국가와의 협력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중동 양자간 지속가능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협력부문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1. 국가별 원유 수입 비중 현황

■ 최근 미주, 아시아 등지로 다변화되었던 우리나라의 원유도입선이 2022년 다시 중동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23년 1/4분기에도 같은 추세가 지속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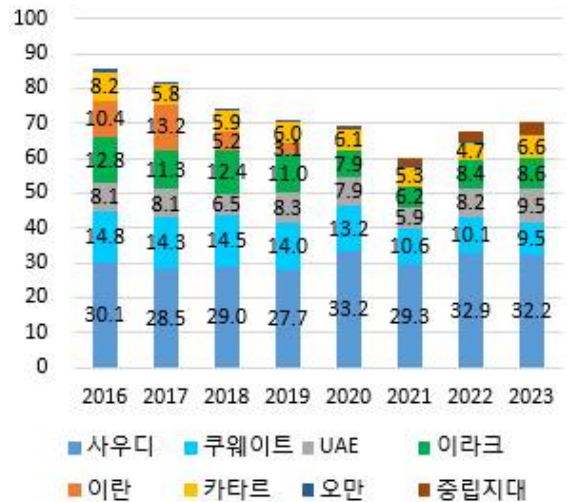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16년 85.9%에서 2021년 59.8%로 5년간 약 26.1%p 감소하였으나, 2022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7.6%p 증가하며 67.4%를 기록하였음.
- o 중동지역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29.3% → 32.9%)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라크(6.2% → 8.4%), UAE(5.9% → 8.2%) 등의 비중도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 반면 2022년 미주와 아시아 지역 국가들로부터의 원유 수입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1.5%p, 3.0%p 감소하며 19.8%, 8.9% 기록하였으며, 특히 미주의 경우 미국이 약 40년 만에 본격적으로 원유 수출을 재개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음.
- 2023년 1/4분기에도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70.2%를 기록하며 대중동 의존도 심화 추세가 지속되었음.

그림 1.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지역별 비중 추이 (단위: %)



주: 2023년은 1/4분기까지의 수치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3. 5. 26).

그림 2. 원유 수입량의 중동 국가별 비중 추이 (단위: %)



주: 2023년은 1/4분기까지의 수치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3. 5. 26).

■ 우리나라의 10대 원유 수입국에도 변동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러시아가 순위권에서 제외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국경 사이에 위치한 중립지대가 새로 진입함.²⁾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대 원유 수입국 중 중동지역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UAE,

1) 한국석유공사 기준에 따라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뉴질랜드는 아시아 지역, 북아프리카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에 포함함.
2) 한국석유공사 기준에 따라 중립지대를 따로 분리하여 표기함: 중립지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국경 사이에 위치하며, 1922년 국경선 획정 과정에서 미획정 지역으로 남겨짐. 해당 지역 유전은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생산 물량은 반으로 양분하고 있음.

카타르 5개국³⁾이었으나, 2022년과 2023년 1/4분기에는 이와 함께 중립지대가 포함됨.

-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21년 5.6%에서 2022년 2.0%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 12월부터는 모든 수입이 중단되었음.³⁾
-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미 원유 수입 비중은 점진적으로 늘어났으나, 분기별로 살펴볼 경우 2022년 1/4분기 이후 뚜렷한 추세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미 원유 수입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2년 1/4분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5.0%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추세적 흐름 없이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 멕시코, 브라질로부터 다량의 원유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원유 도입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멕시코의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10대 원유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도 2021년 86.8%에서 2022년 91.2%, 2023년 1/4분기 9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1. 우리나라의 10대 원유 수입국 변화

(단위: 천 배럴, %)

| 순번 | 2021년 | | | 2022년 | | | 2023년(1/4분기) | | |
|----|-------|---------|------|-------|---------|------|--------------|---------|------|
| | 국가 | 수입량 | 비중 | 국가 | 수입량 | 비중 | 국가 | 수입량 | 비중 |
| 1 | 사우디 | 281,774 | 29.3 | 사우디 | 339,567 | 32.9 | 사우디 | 83,790 | 32.2 |
| 2 | 미국 | 118,668 | 12.4 | 미국 | 136,414 | 13.2 | 미국 | 36,058 | 13.9 |
| 3 | 쿠웨이트 | 101,721 | 10.6 | 쿠웨이트 | 103,656 | 10.1 | 쿠웨이트 | 24,735 | 9.5 |
| 4 | 이라크 | 59,993 | 6.2 | 이라크 | 87,050 | 8.4 | UAE | 24,727 | 9.5 |
| 5 | UAE | 56,809 | 5.9 | UAE | 85,253 | 8.3 | 이라크 | 22,475 | 8.6 |
| 6 | 멕시코 | 54,400 | 5.7 | 카타르 | 48,212 | 4.7 | 카타르 | 17,192 | 6.6 |
| 7 | 러시아 | 53,748 | 5.6 | 카자흐스탄 | 47,599 | 4.6 | 카자흐스탄 | 13,075 | 5.0 |
| 8 | 카타르 | 50,610 | 5.3 | 멕시코 | 40,764 | 4.0 | 중립지대 | 9,791 | 3.8 |
| 9 | 카자흐스탄 | 32,662 | 3.4 | 중립지대 | 27,872 | 2.7 | 멕시코 | 7,956 | 3.1 |
| 10 | 브라질 | 23,265 | 2.4 | 브라질 | 24,132 | 2.3 | 브라질 | 6,310 | 2.4 |
| | 소계 | 833,650 | 86.8 | - | 899,796 | 91.2 | - | 246,109 | 94.6 |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3. 5. 26).

2. 대중동 원유 수입 증가 요인

■ [안정적 공급처 선호 기조]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과 러시아산 원유 도입 중단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우리 정유사의 안정적 공급처 선호 기조가 강화됨.

- 러-우 전쟁 발발 직후 전 세계 2대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음.
- 이에 우리 정유사는 전체 원유 수입의 5.6%(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대체 수입처를 모색해야 했으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량

3)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3. 5. 26).

확보가 가능한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도입 선호 기조가 확대되었음.

- 중동은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입 계약 대부분이 장기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함.
- 러-우 전쟁 이후 아시아 지역 내 정유사는 중동 산유국과의 원유 계약기간을 통상적인 계약기간보다 연장하여 체결하려는 모습을 보임.⁴⁾

■ [중동산 원유의 접근성 확대] 중동 산유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중동의 주요 원유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 인도의 대중동 원유 도입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중동산 원유의 접근성이 확대됨.

- 러-우 전쟁 이후 중동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2년 9월 일평균 2,818만 배럴로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OPEC+의 감산 시행으로 2023년 2월 2,690만 배럴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평균(일일 2,457만 배럴) 대비 240만~320만 배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3 참고).
- 한편 러시아는 서방의 수출 제재에 대응하여 국제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자국산 원유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선호 확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러-우 전쟁 직후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WTI-우랄 스프레드는 양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대체로 배럴당 10~3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4 참고).
- 중국과 인도는 자체적인 대형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입하는 원유 비중이 높아, 위반 시 해상운송보험을 제한하는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준수 유인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3. 중동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 배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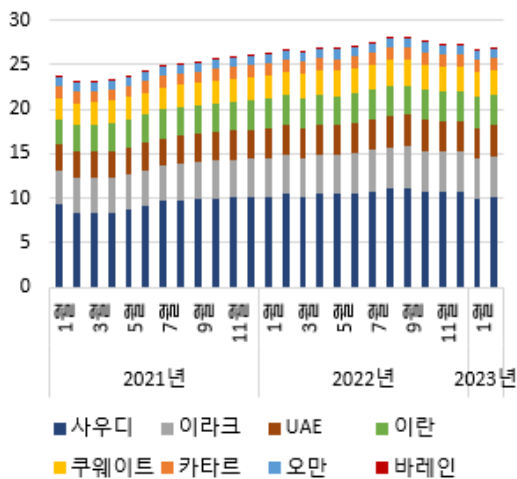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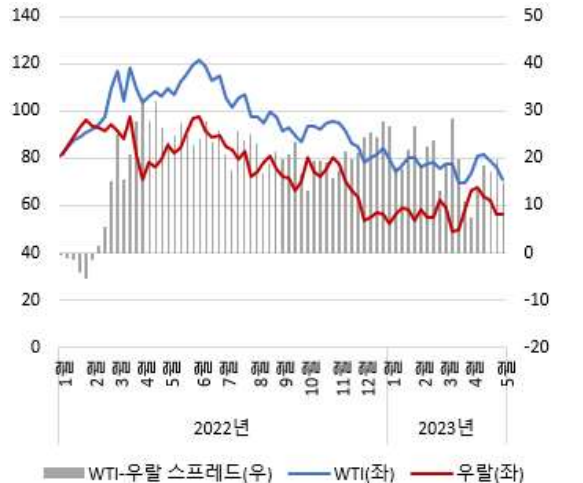


그림 4. WTI-우랄 스프레드 추이
(단위: 달러/배럴)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23. 5. 26). 자료: Bloomberg;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3. 5. 26).

- 이에 중동의 제1대, 제2대 원유 수출 시장인 중국과 인도의 대중동 원유 도입 물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우리 정유사의 중동산 원유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이어짐.

4) S&P Global, South Korea deepens reliance on Saudi crude; September shipments up 30% on year(검색일: 2023.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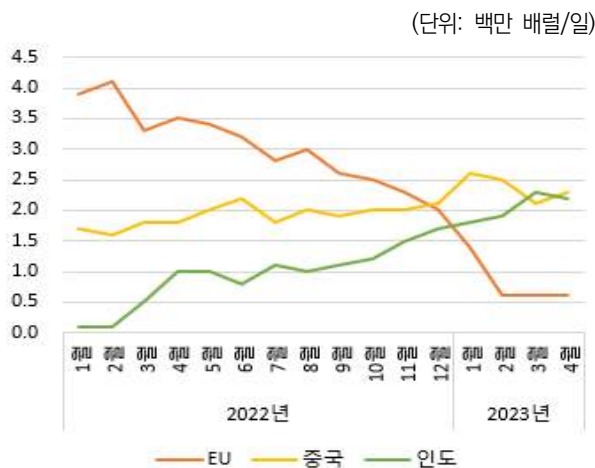
- 2023년 1/4분기 중국과 인도의 대중동 원유 수입 물량은 일평균 각각 557만 배럴, 273만 배럴로 전년동기대비 약 4만 배럴, 34만 배럴 감소하였으며, 두 국가의 원유 수입 감소량 38만 배럴은 2023년 1/4분기 우리나라 일일 원유 수입량(약 289만 배럴)의 13.1%에 해당됨.
 - 같은 기간 중국과 인도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도 각각 3.7%p, 15.5%p 감소하며 50.2%, 50.4%를 기록하였음.
- 중동 산유국의 대EU 수출도 확대되고 있으나 그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감소분을 중동보다는 미국, 노르웨이 등을 위주로 충당하는 모습을 보임(그림 7 참고).⁵⁾

그림 5. 아시아 주요국의 러-우 전쟁 전후 원유 수입원별 비중 비교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3. 5. 26); KITA, 세계무역통계(검색일: 2023. 5. 26); MEES, China and India Import New Record Russian Volumes(검색일: 2023. 5. 23).

그림 6. 러시아의 지역별 원유 수출 규모 추이 비교



자료: IEA(2022), Oil Market Report October 2022, p. 30; IEA(2023), Oil Market Report May 2023, p. 19.

그림 7. EU의 수입원별 해상 원유 수입량 변화(2021년, 2023년 1/4분기 비교)



주: 1) 2021년 대비 2023년 1/4분기 변화량을 나타냄.
2) 하늘색 막대(러시아)는 감소량, 청록색 막대는 증가량을 의미함.
자료: IEA(2023), Oil Market Report April 2023, 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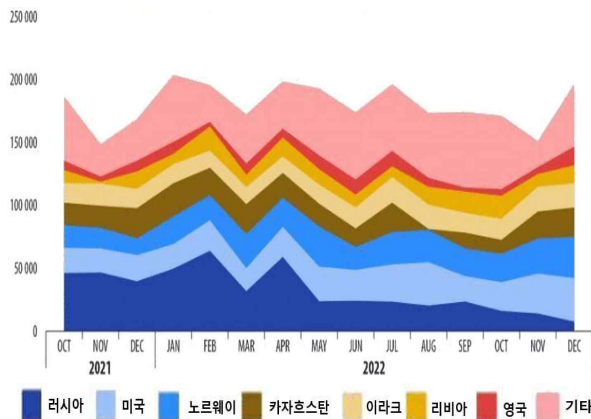
5)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The EU Ban on Russian Oil: Crude Implications for the Middle East(검색일: 2023. 6. 5).

■ [미국산 원유에 대한 글로벌 경쟁 심화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최근 우리 정유사가 도입선 다변화 대상으로 주목해온 미국을 대체 수입처로 고려할 수 있으나, EU 내 미국산 원유 수요 확대로 도입 경쟁이 심화됨.

- 미국의 비전통 원유 생산량 증가, 우리 정유사의 도입선 다변화 기조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우리나라의 대미국 원유 수입 비중은 2017년 1.2%에서 2022년 13.2%로 5년간 12.0%p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유가 상승으로 최근에도 미국의 산유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러-우 전쟁 발발 이후 EU가 러시아에 대한 대체 수입처로 미국을 주목하면서 미국산 원유에 대한 경쟁이 불가피해짐.
 -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의 대EU 일평균 원유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44.8% 증가한 146만 배럴을 기록하였음.⁶⁾
 - 2022년 10월 S&P Global은 EU 시장의 미국산 원유 수요 증가로 미국 에너지 공급업체가 아시아 국가에 추가 물량을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⁸⁾
- 2022년 12월 EU의 대러시아 해상 원유 수입 금지조치 이후 EU의 미국산 원유 수입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⁹⁾
 - 미국은 2022년 12월 EU 전체 원유 수입의 18%를 차지하며, EU 내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 (그림 8 참고).¹⁰⁾
 -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2023년 3월 미국은 당월 20일까지 EU에 일평균 21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며 EU 시장에 대한 수출량 최고치를 경신하였음.¹¹⁾

그림 8. EU의 수입원별 원유 수입 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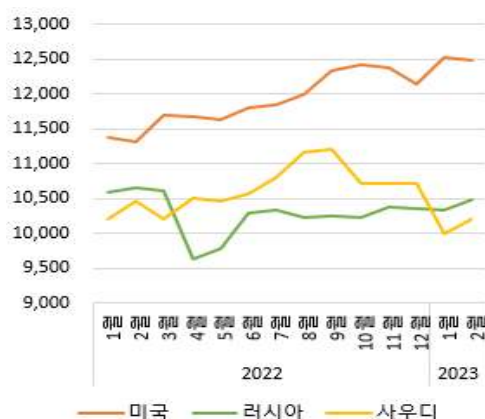
(단위: 천 배럴)



자료: Eurostat, Crude Oil Imports and Prices: Changes in 2022(검색일: 2023. 6. 2).

그림 9. 3대 원유 생산국의 생산량 추이 비교

(단위: 천 배럴/일)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23. 5. 26).

6) S&P Global(2022. 11. 22), Asia's share of US crude exports wanes as flow shifts to Europe(검색일: 2023. 2. 20).
 7) 미국의 대EU 원유 수출량 증가분은 같은 기간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 물량(일일 약 64만 배럴)의 71.0% 수준이며, 같은 기간 미국 원유 수요량은 일평균 66만 배럴 증가하였음(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23. 5. 26)).
 8) S&P Global(2022. 10. 20), South Korea deepens reliance on Saudi crude; September shipments up 30% on year(검색일: 2023. 2. 20).
 9) 단 EU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가리아는 2024년까지 제재 면제를 받아 해상 운송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속하고 있음(Reuters, How the EU ban on Russian oil imports affects oil flows(검색일: 2023. 6. 5)).
 10) Eurostat, Crude Oil Imports and Prices: Changes in 2022(검색일: 2023. 6. 2).
 11) Reuters, U.S. oil exports to Europe hit record in March on steep discounts(검색일: 2023. 6. 5).

- 최근 글로벌 원유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산유량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미국으로부터의 추가 원유 도입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그림 9 참고).
- o 2022년 12월 첫째 주 미국 내 총 시추기 수는 784개로 최근 2년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23년 5월 넷째 주 711개까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¹²⁾

3.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의존도 증가는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불안에 대응하여 우리 정유사의 안정적 공급처 선호 기조가 확대된 가운데, 중동산 원유의 접근성은 강화된 반면 미국산 원유의 글로벌 경쟁은 심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원유 제재,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인하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각국의 외교적 입장 및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주요 원유 수입국의 도입선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대체 수입처로서 중동과 미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중동에 더욱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자연스럽게 10대 원유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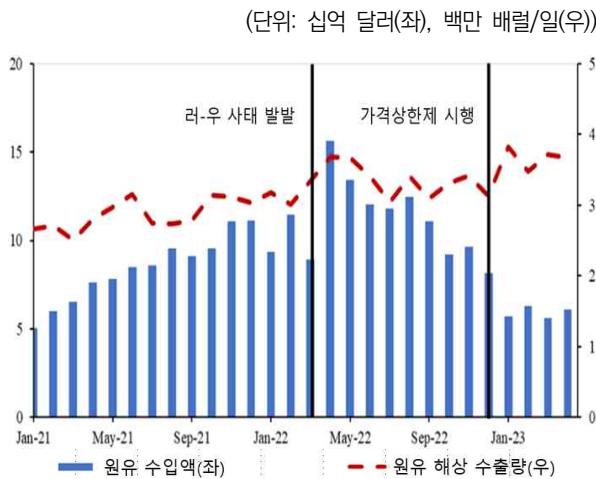
■ 국제 시세 대비 저렴할 뿐 아니라 미국 등의 도입선에 비해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일부 아시아 국가의 러시아산 원유 선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도입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음.

- 중국, 인도, 튀르키예와 같은 기존 원유 수입국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지역 내 주요 원유 생산국에서도 채수출에 따른 차이 실현을 위해 최근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있음.
- 이렇듯 러-우 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재편된 글로벌 원유지형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서방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등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23년에도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선호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음.
 - o 2022년 12월 발효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가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 감소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 제재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 감소로 이어져 국제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방 국가가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임(그림 10 참고).
- 또한 중동 산유국이 중국 및 인도 시장에 대한 점유 유지를 위해 향후에도 자국산 원유의 대아시아 OSP(Official Selling Price)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량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¹³⁾¹⁴⁾

12) Baker Hughes, Baker Hughes US Rig Count by Basin(검색일: 2023.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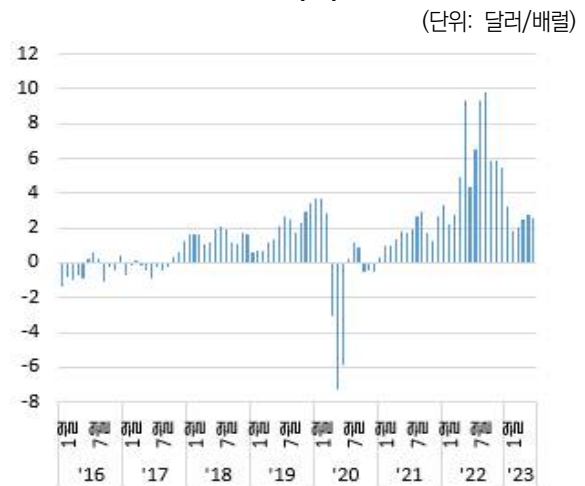
- 러-우 전쟁 발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급자 우위 시장을 활용하여 아시아에 대한 아랍경질유 OSP(Official Selling Price)를 사상 최대 규모인 배럴당 9.35달러로 인상하고 당해 9월에는 9.8달러로 인상하며 최고치를 재경신하였으나, 2023년 들어 1~3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음(그림 11 참고).

그림 10. 러시아 원유 수입액 및 해상 수출량



자료: U.S. Department of Treasury, The Price Cap on Russian Oil: A Progress Report(검색일: 2023. 6. 1).

그림 11. 아람코 아랍경질유의 아시아 인도분 OSP 추이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3. 6. 1).

■ 수입원의 특정 지역 편중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향후 우리 정유사의 가격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중동 원유 비중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입처 개척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중동은 전통적으로 정세가 불안한 지역일 뿐 아니라 2010년대 후반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유전시설 공격 등 역내 국가간 갈등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최근 대중동 원유 도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임.
- 원유 수입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경우 해당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에 따른 가격 변동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정유사의 가격 협상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러-우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2023년에도 중국의 석유 수요 회복 등에 따라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원유 도입선 편중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그림 12 참고).
- OPEC+ 감산정책과 더불어 중국의 원유 수요 회복의 영향으로 2023년 2/4분기부터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4/4분기에는 수급 격차가 200만 배럴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13 참고).¹⁵⁾

13)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The EU Ban on Russian Oil: Crude Implications for the Middle East(검색일: 2023. 6. 5).

14)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의 아시아 인도분 OSP는 벤치마크 유종인 오만유와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할증 및 할인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정함.

15) 단 이란 핵합의 복원 기대감 상승에 따른 이란 산유량 증가와 감산 정책 이행을 둘러싼 OPEC+ 회원국간 갈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음[The Wall Street Journal, Saudi Arabia, Russia Ties Under Strain Over Oil-Production Cuts(검색일: 2023. 6. 5)].

- 이에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미주,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수입처 발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 o 우리 정부는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해 1980년대부터 원유 도입선 다변화에 대한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계약건별 최소 물량 요건을 추가하는 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표 2 참고).

그림 12. 경제권별 원유 소비량 변화

(단위: 백만 배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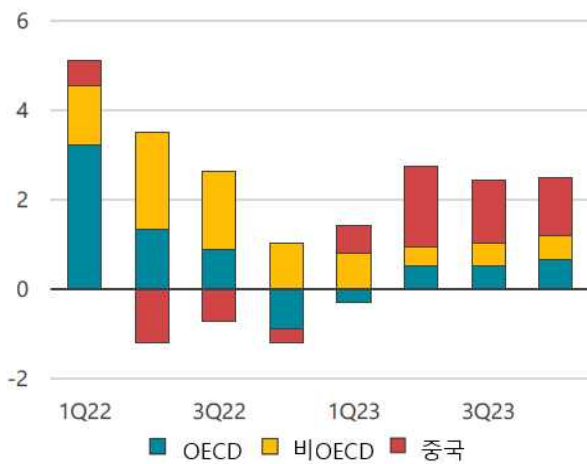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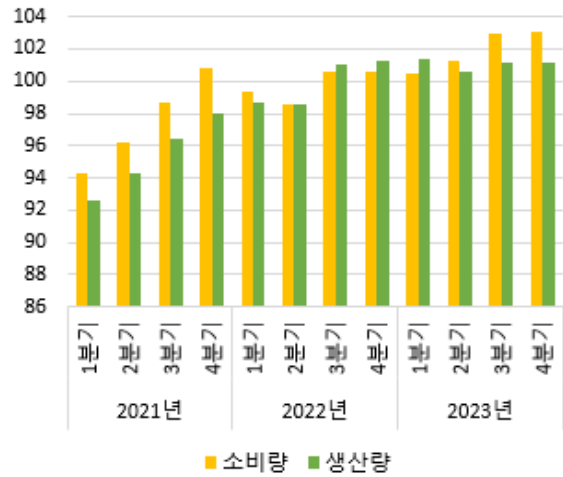


그림 13. 전 세계 원유소비량 및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 배럴/일)



주: 2023년 2/4분기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IEA(2023), Oil Market Report May 2023, p. 4.

주: 2023년 2/4분기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IEA(2023), Oil Market Report May 2023, p. 53.

표 2. 우리나라의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도 변천 과정

| 구분 | 지역 | 지원 조건 | 지원 내용 | |
|-------------------------|--|--------------------------------------|---|-------|
| 1982년 3월 ~ 1986년 4월 | 미주 아프리카 | - | 추가운송비 추가금융비 수입장려금 | |
| 1986년 5월 ~ 1987년 5월 | | 1년 이상 계약 | 추가운송비 추가금융비 | |
| 1987년 6월 ~ 2003년 12월 | | | 추가운송비 | |
| 2004년 1월 ~ 2013년 5월 | 미주 아프리카 구주(CIS 포함) | 1년 이상 계약 연 4항차 이상 연 700만 배럴 이상 | 추가운송비 | |
| 2013년 6월 ~ 2014년 12월 | | 다변화지역별 연 200만 배럴 이상 | | |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 | 1년 이상 계약 연 2항차 이상 다변화지역별 연 200만 배럴 이상 | 추가운송비 |
| 2016년 1월 ~ 2019년 8월 | | | | |
| 2019년 9월 ~ | 1년 이상 계약 연 2항차 이상 다변화지역별 연 200만 배럴 이상 계약건별 연 400만 배럴 이상 | | | |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석유안보 정책(검색일: 2023. 6. 1).

- 원유 도입 감소가 중동 국가와의 협력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중동 양자간 지속가능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협력부문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중동지역 국가들이 최근 개발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수소, 석유화학, 스마트시티 등 부문에서 향후 양자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첨단산업 기반과 관련 선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 2022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에서 진행된 중국-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음.
 - 이어 이듬해 3월에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후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내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로서의 참여를 결정함. **KIEP**